

풍년 농사 '흉년 농심'

쌀 수확 예상량 역대 최대 ... 재고물량 '산더미'
소비는 해마다 줄어 쌀값 하락 ... 농민들 한숨

올해 전국 쌀 수확 예상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정부 재고 물량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쌀값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수확기인 최근 날씨가 좋아 생산량이 늘어났다. 지난 3년간 연속 풍년이 들어 정부 재고 물량도 최고치 수준이어서 벌써부터 현지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 등에 따르면 올해 10a(300평)당 쌀 생산량은 지난해 수준(520kg)을 크게 웃도는 528~539kg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3년 508kg, 2012년 473kg에 비해 많게는 60kg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 예상 최저치인 528kg은 지난 2009년 534kg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최고 예상치인 539kg는 역대 가장 많은 양이다.

흔히, 수확 직전에 덮치는 태풍과 병해충이 쌀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올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었다. 또 최근 전남지역 등 전국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나락이 잘 여물어 생산량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상량을 토대로 추정되는 올 전국 쌀 생산량은 지난해 424만보다 증가한 422만~431만t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5년 간 평년 생산량 404만t을 훌쩍 뛰어넘는 양이다.

문제는 계속되는 풍년으로 정부 곳간의 쌀도 포화 상태라는 점이다. 현재 정부 쌀 재고는 적정선인 70~90만t을 넘어선 139만t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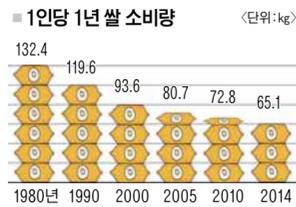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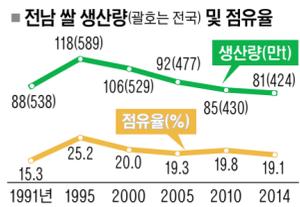
연간 40만t을 보내줬던 대북 쌀 지원이 중단돼 정부의 재고량이 해마다 쌓였고,

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사들일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정부 재고량도 최고치이며, 계속된 풍년 탓에 적정 수준의 산지 쌀값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지난해 국민 소비와 종자 등에 쓴 쌀의 양은 400만t 수준이었다. 올해 생산이 예상되는 쌀 중 적게는 22만t, 많게는 31만t의 재고가 또 쌓여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한가마 15만9648원으로 지난해 수확기보다



4.6% 떨어졌다. 쌀이 넘쳐났던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물량이 한꺼번에 시중에 풀려 길거리 곳곳에서 쌀 20kg를 2만원에 판매하는 노점상이 활개를 치는 등 쌀값이 폭락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격리 조치가 없다면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

로 우려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농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대학 캠퍼스 같은 광주교도소

광주교도소가 45년간의 문흥동 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19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으로 신축 이전한다. 새 교도소는 담장과 철조망, 감시탑을 없애고, 깔끔하고 단정한 건물로 연결하고 벤치를 설치해 마치 대학 캠퍼스 느낌을 주고 있다. > 관련기사 6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등산 반딧불이 서식처 파괴 논란에 광주 북구, 원효계곡 준설공사 백지화

무등산 반딧불이(개풍벌레)가 준설공사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 <광주일보 7일자 1면>과 관련, 광주시 북구가 관련 공사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광주시 북구는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키로 했던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반디마을) 앞 평양천 200m 구간에 대한 준설 공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7일 밝혔다. 북구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을 우려, 풍암천(폭 25m) 바닥을 50cm가량 파내고 주변 수풀을 제거하는 공사를 지난달 1일 착공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지난 5년간 반딧불이 애벌레의 먹이인 다슬기를 하천에 풀고 우

렁이 농법으로 벼농사를 짓는 등 어렵사리 반딧불이 서식지를 복원한 상황에서 북구의 준설 공사가 진행될 경우 반딧불이 서식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공사를 반대해왔다.

북구는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시기가 지났고 어느 정도 주민 의견 수렴이 됐다"며 공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반딧불이 서식처 파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방침을 철회, 치밀하지 못한 정책 결정에 따른 비판을 받게 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7일 오전 7시 5분 신안군 흑산도 신안수협 흑산지점 위판장에서 종매인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명절 이후 첫 위판이 열렸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제철 다가오는 신안 흑산홍어 위판장 가보니 "치매에 좋다" 연구 결과에 주문 빗발 1마리 48만원... 100여마리 금새 팔려

"어어어어어어 어... 1번선 1마리 50만 48만원"

7일 오전 7시 5분 신안수협 흑산지점 위판장에서 경매사의 추임새를 시작으로 추석 명절 연휴 이후 첫 홍어 위판이 시작됐다. 6척의 홍어잡이 어선 가운데 대왕호, 영진호 등 2척이 잡은 홍어 100여 마리가 위판장에 놓이자 종매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좋은 '물건'을 걸논질했다. 연휴 이후 바람이 세고 조류가 강해 경매 물건이 크게 줄면서 위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출항 5일만에 흑산도 예리항으로 돌아온 대왕호 김공렬(67) 선장은 "이번에 위판장에 내놓은 홍어들은 명절 전에 던져 놓은 주낙에 걸려든 것들"이라며 "생각보다 상태가 좋다"고 말했다.

홍어 껍질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PEFL.펩타이드가 개발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종매인들은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흑산지점 관계자는 "홍어 껍질이 치매에 좋다는 말이 '흑산 홍어를 구해달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위판량이 생각보다 적어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 같다"고 전망했다.

경매 시작과 동시에 종매인들은 검은 색 팻말에 분별로 가격을 써가며 경매사

에게 들어보였다. 8~9kg짜리 A등급은 여러 차례 경쟁 끝에 48만원에 팔려나갔다. 예상대로 추석 전보다 다소 오른 가격이였다.

위판 가격에 종매수수료 등이 더해져 인근 식당에 건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최상품은 50만~60만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에 이어 중품, 하품까지 경매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종매인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하품 9마리는 경매사의 계속된 권유 속에 20년간 위판에 참여한 한 최고령 종매인 일만(여·70)씨가 마리당 1만원에 구입했다. 김씨는 "말려서 탕이나 찜으로 팔면 된다"며 "경매사가 하도 재촉해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매는 홍어와 같이 잡힌 아귀 경매를 끝으로 시작 15분만인 오전 7시 20분 끝났다.

흑산 홍어잡이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금어기 이후 재개됐으며 최상품은 kg당 4만5000원 이상의 위판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흑산지점 관계자

는 "최상품은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다른 홍어잡이 어선이 이번 주말 들어올 예정이라서 가격은 조만간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생각 '가을' > 3면

이상한 사립학교 직원 채용 > 7면

축구 오늘 밤 쿠웨이트전 >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광주사범·사대
광주교육대학교**
제41회 총동문체육대회
■ 일시 : 2015. 10. 24 (토) 09:00
■ 장소 : 모교 운동장(풍향대)
■ 전화 : 062)520-4555
광주사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우 흥 민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와
피부에 닿을 때마다 빛나는 빛이 되게
속해선 어떤 피부도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